

# ARMY LANGUAGE SCHOOL



151

PRESIDIO of MONTEREY, CALIFORNIA

РУССКИЙ

БЪЛГАРСКИ

СРПСКО-ХРВАТСКИ

57-61754

POLSKI

華語

THE HISTORY

粵語

SHQIP

OF

ČESKY

MAGYAR

KOREA

ΕΛΛΗΝΙΚΑ

日本語

한글

TURKÇE

JULY 1951

ESPAÑOL

PORTUGUES

FRANÇAIS

فارسی

العربی

ROMÂNĂ

SVENSKA

DANSK

NORSK

ITALIANO

KOREAN LANGUAGE DEPARTMENT

DEUTSCH



# 한국역사

THE HISTORY OF KOREA

편찬인 장세운 (張世雲)

COMPILED

by

SAE WOON CHANG, Ph. D.

육군어학교, 한국어부

KOREAN LANGUAGE DEPARTMENT

U. S. ARMY LANGUAGE SCHOOL

(Presidio of Monterey, California)

July, 1948.



머리말

(PREFACE)

이 한국 역사는 한국 내지에서 이미 발행된 여러 한국 역사 서류를 참고하여 미국 육군대학교 한국 어과 한국 역사 교과서 용에 적합하도록 편찬 하였습니다.

일천구백사십팔년 칠월

편찬인 장세운 (張世雲)

(Sae Woon Chang, Ph. D.)



# 조선역사    목록 (CONTENTS)

## 제 일 장    총론.

1. 한국역사의 재료 ----- 1
2. 한국민족의 유래와 그 방면 ----- 1
3. 한국민족의 신앙과 그 특성 ----- 2
4. 옛날 한국민족의 분포 ----- 4
5. 옛날 한국민족의 명칭 ----- 4

## 제 이 장    상고사.

- |       |   |    |
|-------|---|----|
| 제 일 절 | <u>단군 조선</u> -----                                | 5  |
| 제 이 절 | <u>개마지 조선</u> -----                               | 6  |
| 제 삼 절 | <u>위만 조선</u> 과 <u>악랑</u> -----                    | 9  |
| 제 사 절 | <u>열국시베</u> -----                                 | 9  |
| 제 오 절 | <u>삼국이 병립함.</u> -----                             | 11 |
| 제 육 절 | <u>고구려</u> 가 강하여짐 -----                           | 14 |
| 제 칠 절 | <u>수나라</u> 와 <u>당나라</u> 가 <u>고구려</u> 를 침입함. ----- | 15 |
| 제 팔 절 | <u>신라</u> 가 강하여짐 -----                            | 17 |

제구절	<u>백제</u> 와 <u>고구려</u> 의 <u>끝</u> -----	18
제십절	<u>고구려</u> 의 <u>문화</u> -----	20
제십일절	<u>발해</u> -----	22
제십이절	<u>신라</u> 의 <u>말기</u> -----	23
제십삼절	<u>신라</u> 의 <u>문화</u> 와 <u>그특성</u> -----	24
제십사절	<u>조선</u> <u>삼고사</u> 에 나타난 <u>외국문화</u> -----	26

### 제 삼 장 중 고사

제일절	<u>고려</u> 가 <u>일어남</u> -----	28
제이절	<u>금한</u> 나라 와 <u>여진족</u> 과의 <u>관계</u> -----	29
제삼절	<u>묘청</u> 의 난 과 <u>무판</u> 의 <u>세력</u> -----	30
제사절	<u>몽고</u> 의 <u>침입</u> -----	31
제오절	<u>왜</u> 해적-----	32
제육절	<u>고려</u> 가 <u>망함</u> -----	33
제칠절	<u>고려</u> 의 <u>문화</u> -----	34

### 제 사 장 근세사

제일절	근세 <u>조선</u> 이 <u>일어남</u> -----	37
-----	---------------------------------	----



제이절	<u>세종대왕</u> -----	37
제삼절	<u>사회와 당파싸움</u> -----	38
제사절	<u>임진왜난</u> -----	40
제오절	<u>병자호난</u> -----	42
제육절	<u>조선 전기의 문화와 공예</u> -----	43
제칠절	<u>문화의 진흥과 정치의 부패와 민중의 반항운동</u> -----	46
제팔절	<u>대원군</u> -----	48
제구절	<u>외국과의 관계</u> -----	49
제십절	<u>정무안의 내홍</u> -----	51
제십일절	<u>조선의 내정</u> 을 <u>청·일</u> 양국이 간섭함 -----	52
제십이절	<u>조선</u> 에 관한 <u>청·일</u> 조약 -----	53
제십삼절	<u>동학난</u> 과 <u>일·청</u> 전쟁 -----	54
제십사절	<u>일·호</u> 의 충돌 -----	55
제십오절	<u>한국</u> 이 <u>일본</u> 에 합병됨과 <u>조선</u> 인의 독립운동 -----	56

— 목록 끝 —



# 한국역사

## 제일장 총론

### 1. 한국역사의 체로

한국역사를 연구하는 이들은 그 체로를 아래에 기록한 몇종류에서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대략으로 말하자면 중국역사에서와 중국와 근대에 한국역사가 들이 쓴 한국역사에서와 한국안과 만주에 남아 있는 고적과 무덤에서와 지금 한국사람의 풍속과 말 등에서 얻는다고 하겠읍니다.

### 2. 한국민족의 유래와 그방언

한국에는 고인돌이 여기 저기 많은데, 특별히 대동강변안과 황해도서편에 있는 주월산 주위에 는 매우 많읍니다. 그러한 고인돌은 구라파 북방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류학자는 말하기를 한국안에서 옛날에 살던 민족은 구라파 북방에서 옛날살던 민족들과 어떤 관계가 있거나

아니한가 합니다.

한국의 말은 우랄-알타이 말에 속하였는데 그말에 속한 다른 나라들은 터키, 핀란드, 헝가리, 몽고, 일본 등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를 보아, 여러 학자들이 말하기를 한국민족은 본디 중앙아시아에서 살았었다고 합니다.

### 3. 한국민족의 신앙과 특성

옛날 한국민족은 아래에 말함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우주는 삼계로 나누어 있는데, 상계 즉 하늘에는 하나님과 다른 광명의 선한 신들이 있는 곳이고, 하계 즉 땅아래 같은 곳에는 악귀(악한신)들이 있는 곳이고, 그중계에는 인간(인생)들이 있는 곳이라고 믿었읍니다.

하늘에 있는 최고 의신인 하나님과 그밖에 선한 신들은 인간을 보호하지 않는 하계의 악귀들은 항상 인간을 해하고자 하므로, 인간은 그해를 받지 아니하려고 항상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여, 깨끗한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선한 신에게 가까이 될 수 있다고 믿었읍니다.



한국민족은 이러한 신앙을 가진 민족이 있었으므로, 그이들은 해(태양)를 숭배하였고, 또한 동쪽을 향하여 전진하였읍니다.

한국민족은 흰빛을 좋아하여 그이들의 옷들도 모두 흰빛(백색)이었읍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중국사람들이 한국민족을 백민(白民)이라고 불렀더랍니다.

#### 4. 옛날 한국민족의 분포.

옛날에는 한국민족이 지금 한국 반도와 만주의 동지방과 남지방과 중국 산둥성과 그남쪽에 있는 땅에까지 퍼져살았다고 합니다.

중국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임금들도 한국민족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 5. 옛날 한국민족의 명칭 (평화)

옛날 중국 역사가들이 중국 민족 밖에 다른 민족을 좋게 말한 것이 없으나 다만 한국민족만은 예외였읍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동이(東夷)[한국민족]는 그 백성의 성질이 착하고 온화하고 겸손하다고 하였습니다.

## 제이장 상고사

### 제일절 단군조선

1. 한국민족이 본디 살던 곳과 그들이 좋아 하는 빛.

한국민족은 중앙아시아에서 동편으로 와서 백두산과 승가리강에서 나라를 처음으로 세웠고 한국민족은 흰 빛을 좋아 하였습니다.

2. 한국민족의 역사가 시작된 전설.

하나님의 아들 환웅이 하늘에서 태백산(지금은 백두산) 아래에 내려와서 그부하 삼천의 과 같이 한국민족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3. 한국민족의 첫 임금.

한국민족의 첫 임금 단군왕검(당줄, 얼검이라고도 한다) 인데, 하나님의 아들 환웅의 아들 이라 합니다.

#### 4. 단군의 정치적과 종교적 지위.

단군은 정치와 종교의 머리였습니다.

#### 5. 단군시대의 서울.

그시대의 서울은 처음에는 백두산 근처에 있다가 그다음에는 평양으로 옮겼고, 맨나중에는 황해도 구월산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 6. 단군의 개국한 해와 그때 나라 이름.

그해는 서력으로는 기원전 이천삼백삼십삼년(2333 B.C)인데, 그해가 단군기원 원년입니다.

그때 나라 이름은 조선이라고 하였습니다.

#### 제이절 개아지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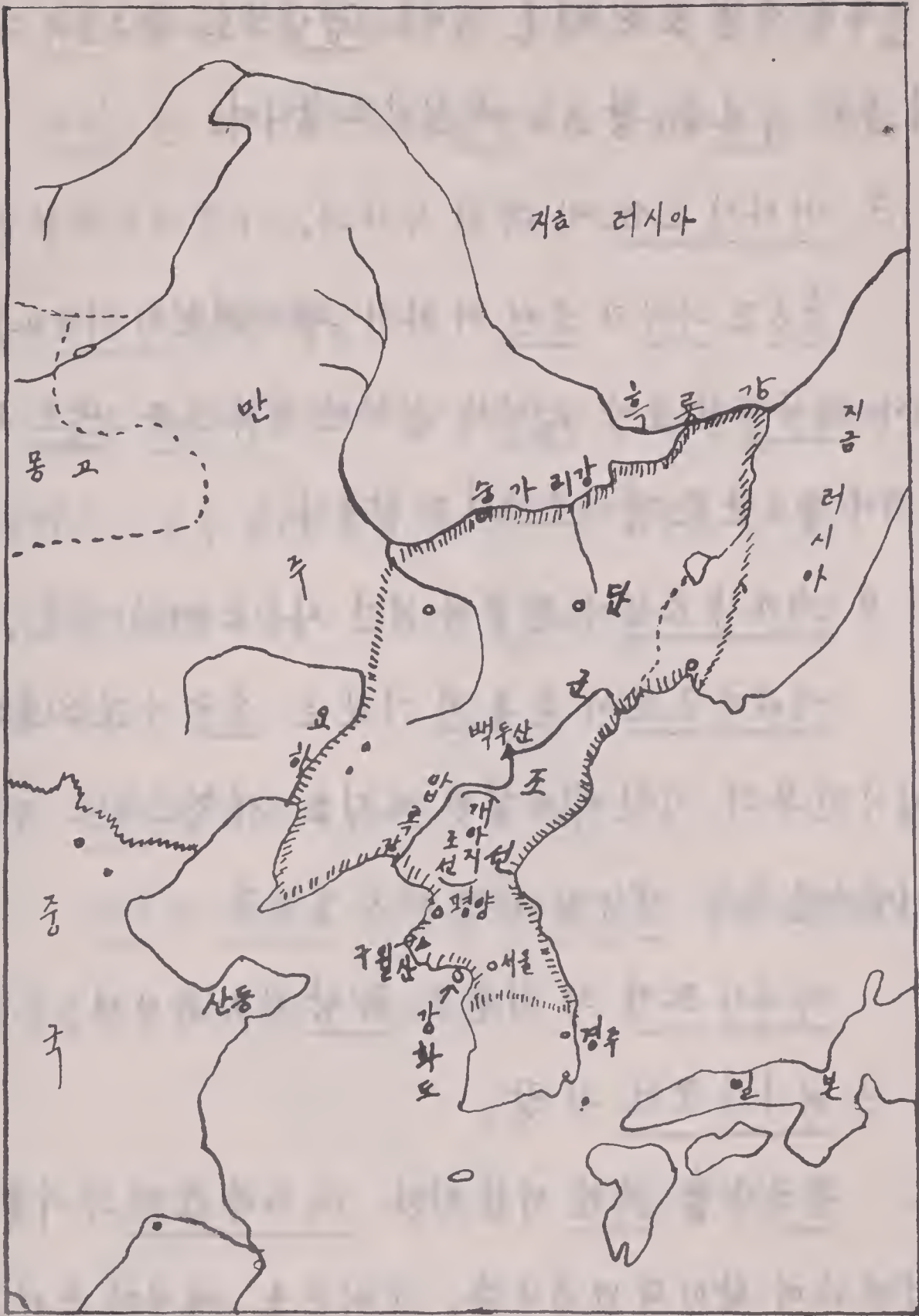
##### 1. 단군조선뒤에 일어난 나라.

단군조선뒤에 한국 역사에 관하여는 두가지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이는 기자조선(箕子朝鮮)이라고 하고, 어떤이는 개아지조선이라고 합니다.

##### 2. 기자조선에 대한 이야기.



제이도 단군조선 최성시대의 세력범위.



- 평양 → 단군조선의 서울
- 개마도 조선의 서울
- 위만조선의 서울

옛날 중국(中國)의 은나라 왕족중에 한사람인 기자란 이가 은나라 사람 노천명을 데리고 평양으로 왔으므로, 그때의 조선사람들이 기자를 왕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 3. 개아지 조선에 대한 이야기.

중국의 기자가 조선에 와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조선사람 중에서 개아지란 분이 평양서 정치만 맡아 보고, 단군은 구월산 근처에서 종교만을 맡아 보았다고 합니다.

### 4. 개아지 조선이 존속된 기간과 그때의 서울.

개아지 조선이 존속된 기간은 단군기원으로는 일천이백십이년부터 이천백사십년까지요, 서력으로는 기원전 일천백이십이년부터 백구십사년까지입니다.

개아지 조선의 서울은 평양이었습니다.

### 5. 개아지 조선의 끝.

중국사람 위만이란 이가 개아지 조선의 서울이던 평양을 점령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개아지 조선의 끝 임금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마한(馬韓)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 제삼절

## 위만 조선 과 약랑

1. 위만 때의 나라 이름들과 그나라가 존속한 연수.

위만 은 그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였고, 그나라는 약구십년 동안 계속하였다고 합니다.

2. 위만 조선의 끝.

중국 한나라 때에 그나라 군사의 점령을 당하여 위만 나라가 망하였고, 그 후 얼마 동안은 만도의 일부분은 한나라의 사군(四郡)이 되었더랍니다. 그 뒤에 약랑만 한나라의 일군으로 계속하였더랍니다.

3. 약랑의 명도와 그 존속한 연수.

약랑 은 황해도의 일부와 평안도 지방이었습니다. 약랑 은 약사백년 동안 계속하였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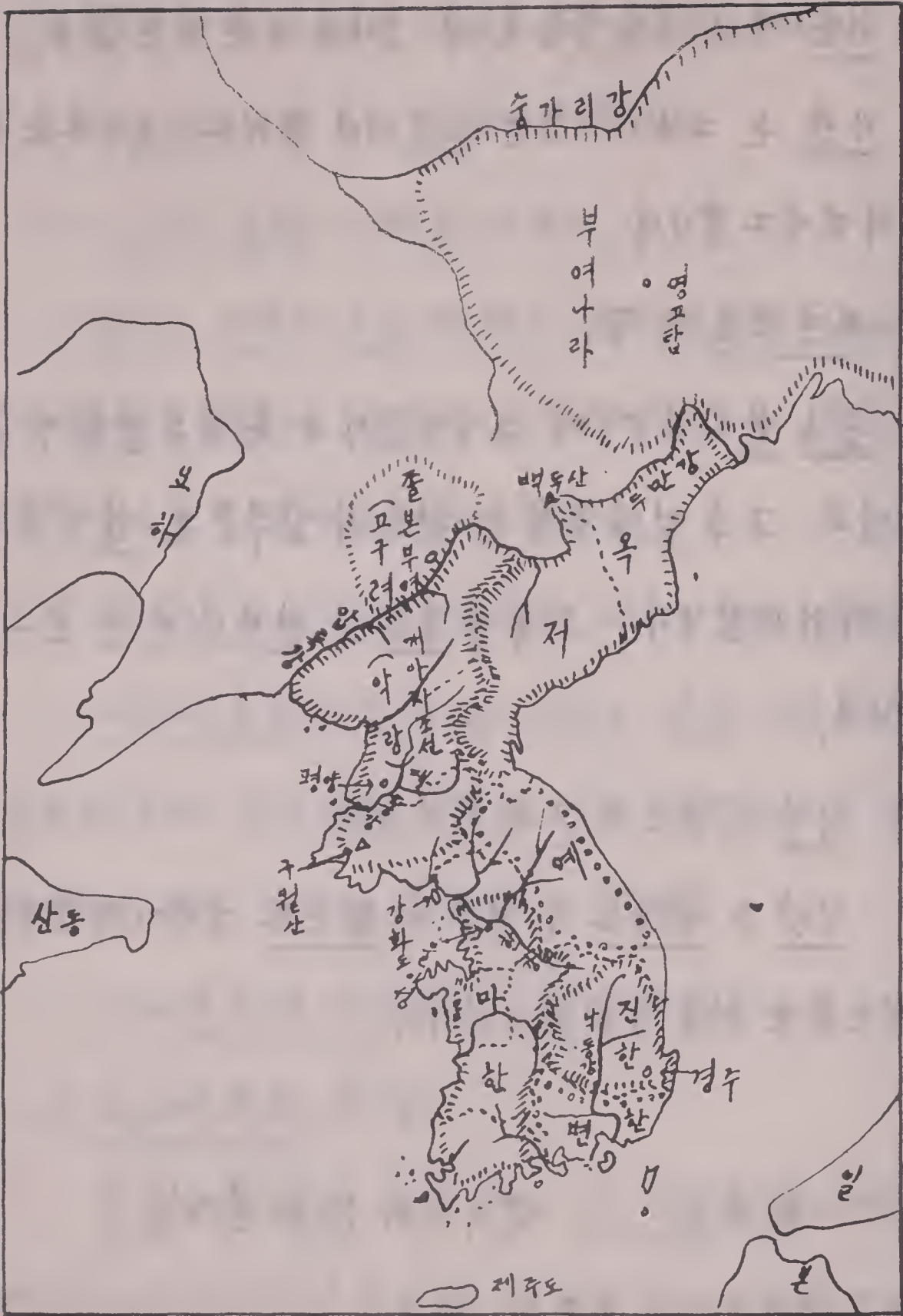
## 제사절

## 열국시대 (列國時代).

1. 열국시대가 존속한 연수.

단군 조선의 끝부터 삼국시대 까지 열국이 나누어져서 있던 때를 열국시대라 하는데, 그 동안은 약 일천여년이 됩니다.

# 제삼도 별국시대



## 2. 열국시대 의 중요한 나라 이름들과 그 영토.

지금 만주 동북 지방에는 단군의 아들 계부루가 씨우부여 나라가 있었고, 지금 함평도 지방에는 옥저가 있었고, 강원도 지방에는 예가 있었고, 지금 평안도와 황해도에는 개야지조선과 위만조선들이 차례로 망한뒤에 약랑이 있었고, 충청도와 전라도와 경기도 일부에는 마한이 있었고, 경상북도에는 진한(辰韓)이 있었고, 경상남도에는 변한(弁韓)이 있었습니다.

## 제 3절 삼국이 병립(併立)함.

### 1. 삼국시대의 나라 이름들과 그 영토.

삼국의 이름들은 고구려, 백제, 신라이고, 그 땅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라는 경상북도와 강원도 일부이고,

백제는 전라도와 충청도와 경기도 일부이고,

고구려는 그남은북한과 만주의 동남편 지방입니다.

### 2. 그세나라들을 세운이름.

본래 부여족 백성의 한터가 남쪽으로 내려 오다가 압록

강 근방에서 고구려 나라를 세웠고, 또 고구려 백성의 한 파가 다시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강 근방에서 백제 나라를 세웠고, 본래 남쪽에 있던 민족 가운데서 신라 나라를 세웠습니다.

### 3. 고구려의 첫 임금.

고구려의 첫 임금의 이름은 동명성왕 (고주몽) 인데, 본디 부여 사람입니다.

단조 기원으로는 이천이백구십칠 년이고, 서력으로는 약 기원전 반세기 (37 B.C.) 즈음 그 이름에서 임금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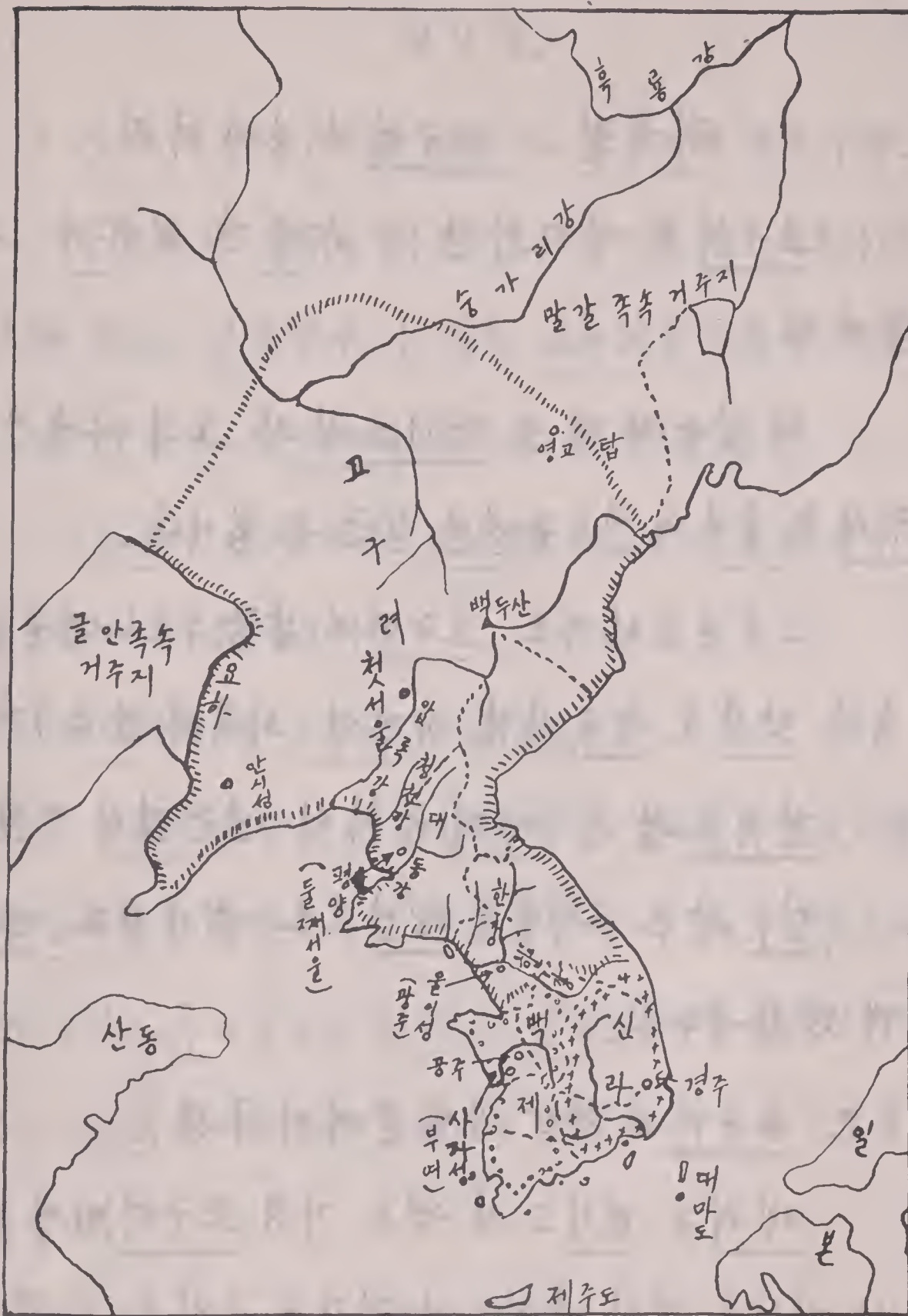
### 4. 백제 나라 첫 임금과 그때 백제의 도성.

백제 나라 첫 임금은 문조왕 인데, 고구려 동명성왕의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고구려 나라보다 약 이십년 후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서울은 물이사 인데 지금 경기도 광주 (廣州) 입니다.

5. 신라의 첫 임금과 그 나라를 시작한 곳과 그 나라를 세울 때.

신라의 첫 임금은 박혁거세 였고, 신라는 경상북도 경주 땅에서 시작하였는데, 그때는 고구려 보다 약 이십년 전입니다.

# 제사도 고구려의 최성시대



- → 고구려의 국경 . 평양 = 고구려의 서울
- ooooo → 백제의 국경 . 사차성 = 백제의 서울
- +++++ → 신라의 국경 . 경주 = 신라의 서울

서기로는 57 B.C 입니다.

제육절 고구려가 강하여짐.

1. 고구려를 강하게 한 두 유명한 임금과 그들이  
위 특출한 사업.

제십구째 왕인 광개토왕과 그의 아들인 장수  
왕이 고구려를 강하게 한 유명한 임금들입니다.

그두 임금전에도, 고구려가 남쪽으로 땅을 넓히  
었는데, 특히 악랑을 중국사람에게서 회복하였읍니다.

광개토왕은 백제를 쳐서 땅을 많이 얻었읍니다.

장수왕은 그서물을 평양으로 옮기었고, 백제의  
서울을 빼앗았읍니다.

2. 고구려가 가장 왕성할때의 국경.

백제는 경기도의 땅은 거의 고구려에게 빼앗  
겼고, 경기도의 남은 땅과 충청도와 전라도 등지를 가졌었고  
신라는 경상도를 가졌었고, 고구려는 우리 반도의 그남은 땅과  
만주의 동남쪽의 땅들을 가졌었읍니다.



제 칠절 수(隋)나라와 당(唐)나라가 고구려를  
침입함.

1. 수나라 (중국)의 왕 양제가 고구려를 쳐들어옴.

수나라의 양제는 서력으로 육세기 초 (단군기원 2945년)  
에 해군과 육군 백만명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쳐들어 왔습니다.

2. 수나라와 고구려나라의 해전의 결과.

고구려 왕의 아우 건무(建武)가 대동강 어귀에서 중국  
해군을 깨쳐 버렸습니다.

3. 수나라와 고구려의 육전.

고구려의 육군은 유명한 장군 문지문덕(文支文德)이 맡았  
습니다. 고구려의 강한 군사는 모두 평양성에 두고, 일부의 적은 수호  
의 군사만 가지고 수나라 군사를 괴어 평양성까지 따라오게 하였습니다.  
그다음에는 평양성에서 부터 물러가는 피곤한 수나라 군사를 쳐서 전  
멸시켰습니다.

4. 중국에서는 당나라가 일어남.

수나라가 고구려에게 싸움에 패한후, 그나라가 망하  
게 되었고, 당나라가 그대신 일어났습니다.



5. 당나라 임금 태종이 고구려를 쳐 들어 온 이야기.

서력 칠세기 중엽에 당나라 임금 태종이 군사 삼십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쳐 들어 왔습니다. 그때에 고구려의 영웅인 연개소문 (延蓋蘇文)이 당나라 군사를 오동 들판에서 맞아 만나는 곳마다 처참한 싸움을 하였습니다. 특히 안시성에서는 팔십팔 일 동안 싸웠습니다. 나중에는 당나라 군사가 할수없이 패하여 돌아 갔습니다.

제 팔 절 신라가 강하여짐.

1. 신라가 강하게 된 동등한 제도.

서력 육세기 (단군기원 2900년쯤) 진흥왕때에 화랑도 (花郎道)라는 제도를 창설하여 인재를 배양하였습니다.

2. 화랑도라는 제도.

화랑도는 무사의 정신을 고취 하는 것이었는데, 첫째로, 의를 중히 여기고, 둘째로 죽음을 경히하고, 셋째로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을 가장 귀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도 이었습니다.

3. 신라가 점점 강하여짐.

첫째로 화랑도로 사람을 배양하고, 둘째로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다투는 틈을 타서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되었고, 셋째로는 당나라와 친밀한 국제적 관계를 맺어서 신라의 세력을 강화해 주었습니다.

4. 그 때에 신라의 두 유명한 사람.

신라의 내정과 군무를 맡아보던 김유신(金庾信) 장군과 외교를 맡아보던 김춘추(金春秋)(뒤에 왕이 되었음)이 있었습니다.

제구절 백제와 고구려의 끝.

1. 백제의 문화가 일본으로 들어간 이야기.

백제는 중국에서 유교(儒教)와 불교(佛敎)와 공업(工業)과 다른 여러가지 문화를 받아들였고, 그것을 다시 일본나라에 전해주었습니다.

2. 백제가 망하게 됨.

신라의 장수 김유신은 신라의 군사 오만 명으로, 당나라는 그나라 군사 십여만 명으로 백제를 쳤습니다. 이 두 나라 연합군을 제항하여 백제는 도무지 군사 오천 명을 가지고, 죽기까지 싸웠으나,

마침내 백제의 서울인 사자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망하였습니다.

### 3. 백제가 망한 해.

백제가 망한 해는 서력으로는 음백육십육년이요 단군기원으로는 이천구백구십삼년이었습니다.

### 4. 고구려가 망하게 된 이야기.

고구려의 중요한 인물이던 연개소문이 죽은 후에 그의 두아들이 권세를 위하여 서로 타툼에만 정신들이 바빠져서 나라 일을 생각할 겨를들이 없었습니다.

신라와 당나라가 합하여 고구려를 쳐들어 몰락에 두 아들이 합하여 원수를 같이 막았어야 될것인데 그중 한아들은 도리어 고구려의 원수인 당나라 군사를 끌고 제 나라를 쳤습니다. 그러므로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에게 고구려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 5. 고구려의 망한 해.

고구려는 고구려의 보장왕 이성질년 (서기 668년 이요, 단기로는 3001년)에 고구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 제 십 절 고구려의 문화.

1. 고대에 있어서 타국의 문화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  
중국의 문화나 그밖에 다른 나라의 문화는 중국을 지나서 한국에 들어 왔습니다.

2. 세 나라 가운데 다른 나라 문화를 받은 첫 나라.  
중국에 가까이 있던 고구려가 중국과 다른 나라의 건축, 공예, 회화, 음악 등을 제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3. 고구려의 건축이나 회화를 찾아볼 수 있는 곳.  
그때의 건축이나 회화는 지금까지 남아 있는 옛 무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평안남도 강서(江西)군의 세무덤과 용강(龍岡)군의 쌍영총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무덤들은 약 일천사오백 년씩 된 것들입니다.

4. 옛 무덤에서 찾아낸 그림과 건축에 대한 이야기.  
세무덤 안 벽에 있는 그림은 동양에서 드문 그림이라고 합니다. 쌍영총 안에 남아 있는 건축은 그 모양이 동양에는 없는 것인데, 서양 건축에 캐피탈(CAPITAL) 식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 무덤 안에 남아 있는 세공품은 옛날 히랍 나라의 세공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 제 삼 일 절. 발해 (渤海, 震)

### 1. 발해 나라를 세운 이야기.

고구려가 망한 후에 고구려의 애국지사들의 독립운동이 많았더랍니다. 그중 고구려의 옛 장수 대조영이 발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첫 임금이 되었답니다.

### 2. 발해 나라의 국경.

그 국경은 북은 지금 흑룡강 (黑龍江, ARMUR RIVER)이요, 남은 지방 함평도와 평안북도의 대부분이요, 서는 만주에 있는 요하 (LIAO HO)요, 동은 백두산의 동북지방이 있습니다.

### 3. 발해의 도성.

발해의 도성은 지금 만주에 있는 녕고탑 (寧古塔) 서쪽에 있는 동경성 (東京城) 이라고 합니다.

### 4. 남조와 북조.

그때 한국 민족이 두 나라로 갈려서 살았는데, 남조는 신라요, 북조는 발해 이었습니다. 그 두 나라가 싸움도 없이 서로



좋아지었다고 합니다.

5. 발해가 존속 한 기간.

발해 나라는 서력 699로 926년 까지 (단기 3032 - 3259) 존속 했습니다.

6. 발해가 망한 후 만주의 땅.

발해는 한티 망하게 되었고, 그 나라가 망한 후 부터 지금 까지 만주의 땅은 한국 민족의 소유가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 십이 절 신라의 말기.

1.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망하게 한 뒤에 신라의 경.

그 때에 경안도의 대부분과 함경도의 대부분은 발해의 땅이고, 그 나머지 반도는 신라의 땅이었습니다.

2.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망하게 한 뒤에 약 이백년 동안의 신라의 형편.

그 때 한 이백년 동안에는 북쪽에 있던 발해 나라와는 싸움도 없이 잘 지내 갔습니다. 그러므로 신라의 형편이 경제상으로는 황금시대 이었고 문화상으로는 가장 찬란한 때 이었습니다.

### 3. 황금시대 이었던 이백년 뒤의 신라

이백년 동안의 황금시대가 지나간 뒤에 여러 왕들이 정사를 잘못하였고, 귀족들의 권세 남용이 심해 졌터랍니다. 그러므로 곳곳에 작은 나라들이 따로 서게 되었습니다.

#### ㉔. 그 때에 신라 안에 분립한 중요한 나라들.

그 때에 전라도 방면에 후백제가 있었고, 강원도 방면에 후고구려가 있었습니다. 후고구려의 이름은 태봉(泰封)이라 했읍니다.

#### 5. 신라를 망하게 한 나라.

태봉의 한대장이었던 왕건(王建)이가 권세를 잡아 스스로 왕이 된 후,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고쳤읍니다. 고려왕 왕건이가 신라를 망하게 하였읍니다.

#### 6. 신라가 망한 해.

서기로는 935년이요, 단기로는 3268년입니다.

## 제십삼절 신라의 문화와 그 특성.

### 1. 신라의 종교.

신라에는 본시 「부류」라는 신도(神道)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당나라에서 중국의 유교와 비도의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신라 말년에는 불교가 매우 성하였었습니다.

## 2. 신라의 고적이 있는 곳.

신라의 고적은 신라의 서훈이던 지금 경상북도 경주 (慶州)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 3. 신라의 고적 가운데 과학상으로 유명한 것.

동양에 지금 남아 있는 천문대의 제일 오랜 첨성대 (瞻星臺)가 경주에 남아 있습니다.

## 4. 조각으로 유명한 것.

경주 석굴암 안에 있는 불상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 5. 건축과 공예.

건축으로는 경주에 불국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불국사의 종은 세계적으로 크다고 합니다. 무덤에서 파낸 것 때에 만든 금관은 세상에 아름다운 세공품이라고 합니다.

## 6. 신라의 유명한 학자.

최치원(崔致遠)은 어려서부터 당나라에 유학하여 한문학(漢文學)으로 유명한 문학가가 되었는데, 중국에서도 저술한 책이 많다고 합니다.

### 7. 신라 역사의 특색.

신라에는 여러로서 왕이 된이가 셋이며, 그밖에 박(朴) 김(金), 석(昔) 세 성이 신라의 임금이 된것입니다.

### 8. 신라 역사의 또 다른 특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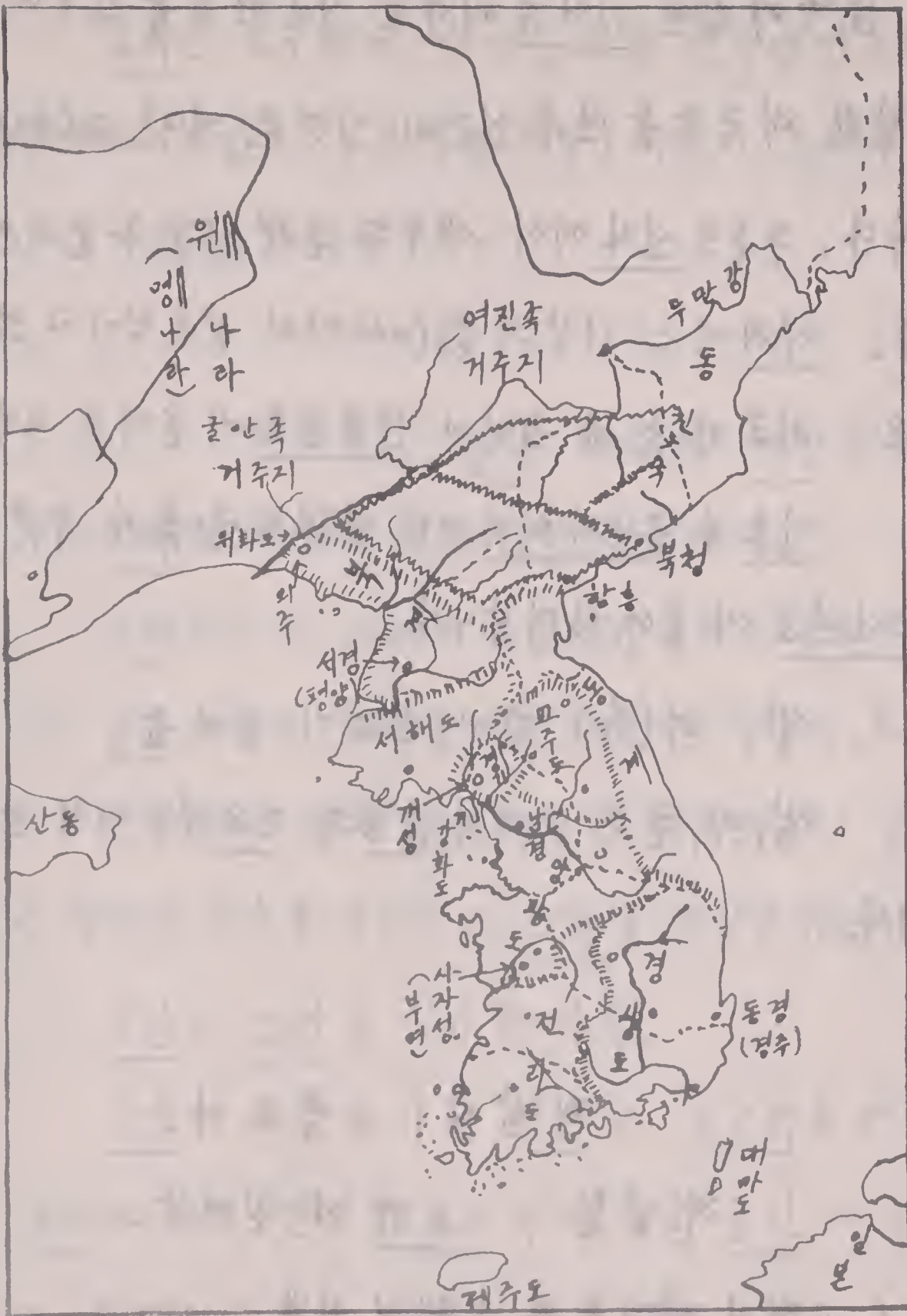
신라는 한국 역사에 있어서 제일로 해상활동을 많이 한나라이었습니다. 당나라와 일본과는 물론이요, 멀리 인도와 남양까지 통상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해상무역은 일천백년전 에 장보고라는 이가 크게 활동한 공이라고 합니다.

## 제 십사절 조선 상고사에 나타난 외국문화.

### 1. 한국 민족의 상고음악.

한국 민족은 음악을 좋아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철현금이 고구려에 들어왔습니다. 고구려에서 은 옥현금을 만들어서 그 새악기에 적당한 백여곡을 지었고, 그후에

# 제칠도 고려시대



- ||||| → 고려 때 의 도계
- mmmm → 추후에 다시 찾은 영도
- 개성 → 고려 의 서울

신라에서도 수백곡을 지어냈습니다. 이것을 거문고(葛文鼓)라고 하였  
습니다. 남쪽에 있던 가라국에서는 십이현금을 만들어서 그악  
기에 적합한 새곡조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가얏고(伽倻鼓)  
라고 합니다. 후후로 신라에서 새곡조 일백팔십조를 만들었다  
고 합니다. 백제에는 서양의 하프(HARP)와 같은 악기가 있었습  
니다.

2. 외국의 춤과 음악이 한국반도에 들어온 이야기.

인도와 중앙아시아에서 성행하던 춤과 무악이 중국을  
지나서 조선반도에 들어 왔습니다.

3. 쌀, 차(茶), 술이 반도에 들어옴.

쌀, 차, 술은 고대 남양과 인도지방에서 반도에 들  
어왔습니다.

제삼강 중고사.

제일절 고려가 일어남.

1. 고려의 첫임금과 그때의 서울.

고려의 첫임금의 이름은 왕건인데, 그는 신라가 가  
졌던 명호를 다 다스렸습니다. 고려의 서울은 지금 개성이었습니다.

## 2. 고려의 중요한 목적.

고려는 고구려의 옛 영토 이던 만주방면으로 나라를 더 넓히려고 하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려의 도성을 평양으로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 제이절 고려 나라와 여진 종파의 관계

### 1. 고려 초기에 고려의 근심되던 나라.

고려 초기에 고려의 근심되던 나라는 고려였습니다.

### 2. 고려 나라가 고려를 첫번 침입한 이야기.

서기 십세기 말에 (서기 993년, 연기 3426) 고려 장수 소손녕이 팔십만 군사를 거느리고 고려를 침입하였습니다.

### 3. 고려가 고려를 침입한 이유.

고려가 주창하기를 고려는 고구려를 예신한 나라 인즉 고려가 가진 옛날 고구려의 영토를 고려에게 내주어야 된다고 하면서 고려를 쳐들어 왔습니다.

### 4. 고려에서는 서지를 고려에 보냄.

고려에서는 서지를 고려에 보내어 말하기를 고려

는 나라 이름도 고구려의 뒤론 이어 본표이니 클안이 도리어 클안 이 가진 고구려의 옛 땅을 고려에게 돌려보내어야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클안이 압록강 이편의 땅을 고려에게 주고 퇴병하였다고 합니다.

### 5. 클안이 고려를 또 침입함.

첫번 침입한 뒤, 약 이십육년 후에 다시 클안이 이십만 대병으로 고려를 침입하였으나, 고려의 서북지방을 지키고 있던 강감찬(姜甘贊) 장군에게 클안군이 대패 하였습니다.

### 6. 고려가 여진족을 조선반도에서 몰아낸 이야기.

고려의 도원수 윤관(尹瓘)이 십칠만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서기 일천백칠년에 함평도에 있던 여진백성을 그곳에서 몰아냈습니다.

### 제삼절 모청(妙淸)의 난과 무관의 세력.

#### 1. 모청의 한일.

모청은 평양지방의 한 중이었는데, 그이는 개성 정부를 반대 하여 따로 평양에 대위국(大爲國)을 세웠습니다.



## 2. 묘청이 새로 나라를 세운 이유.

묘청은 고려의 서울인 개성에 있는 정부를 개혁 할뿐만 아니라, 북으로 고려의 국경을 넓히기도 위하여 고려의 도성을 평양으로 옮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성 정부안에 권세를 잡은 이들이 묘청의 주장을 반대하므로 묘청이 나중에 스스로 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

## 3. 묘청 혁명의 결국.

개성 정부에서 보낸 김부식의 군대 한테 일변안에 묘청이 패하였다 고 합니다.

## 4. 개성 정부 안에 무관과 문관의 관계.

무관과 문관이 권세를 위하여 서로 다투다가 결국은 무관인 최충현이 세력을 잡게 되었는데, 그 후 육십년 동안은 최씨 집안에서 정부를 좌우 할뿐더러 임금도 둘을 폐하기도 하고, 새로 넷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 제 4 절 몽고의 침입.

### 1. 몽고 군대가 침입한 회수.

몽고 군대의 침입은 고려의 임금 고종 십팔년(서력 1231년) 부터 시작하였고, 그 후 약 삼십년 동안 몽고 군이 고려를 여섯번이나 침략하였습니다.

2. 고려에서 취한 방법.

고려의 왕과 정부가 강화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몽고 군대가 병력으로는 고려를 항복 받지 못하였습니다.

3. 몽고인이 중국 본토에서 나라를 세움.

몽고는 중국을 점령한 뒤에 원(元) 나라를 세웠습니다.

4. 고려의 고종왕이 나중에 취한 방법.

고종 사십오년(서기 1258년)에 왕이 폐자를 원 나라에 보내어 화친을 청하였는데, 원 나라 왕은 매우 좋게 생각하여 고려와 평화하기로 결정하고 몽고 군대를 고려에서 철퇴하였습니다.

5. 고려가 몽고 군과 연합하여 행동한 일.

고려와 몽고 군이 연합하여 일본을 해군으로 침입한 일이 있었으나 일본 바다의 풍랑으로 인하여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 제 오 절 왜 해적.

1. 왜 해적은 여러 세기 동안 만도의 해안 지방들을 도적질하고 있었는데, 특히 서기 1350년 부터는 만도의 남쪽, 동쪽, 서쪽 해안 지방들을 침범하였습니다.

## 2. 왜적 토벌에 유명한 장군 두사람.

왜 해적을 토벌한 장군의 하나는 최영이요, 다른 이는 이성계 장군이었습니다. 이성계 장군은 왜 해적을 토벌한 공으로 명성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 제육절 고려가 망함.

#### 1. 중국에서 명나라가 일어섬.

원 나라가 중국에서 쫓겨 나가고 그때인 명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 2. 고려 정부가 명 나라에 대한 태도.

고려 정부안에 두파가 있었습니다. 최영파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고려가 오래동안 원하던 만주의 땅을 다시 찾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하는 이는 마음에 댄 뜻을 품고 있던 이성계 이었습니다.

#### 3. 그때 명 나라의 행동.

고려 정부에 두파가 있는 것을 안 명 나라는 압록강 근방에 군사 근거지를 설치하였습니다.

#### 4. 그때 고려 정부의 정책.

그때 고려 정부는 그 기회에 평나라를 치기로 작정하고 최영은 팔도 도통사가 되고, 이성계는 우군 사령관이 되게 하여, 이성계로 먼저 오만군으로 압록 강을 건너서 만주를 치기로 하였습니다.

#### 5. 뎌 마음을 품은 이성계.

이성계는 압록 강까지 가서는 더 진군 하지 않고 있다가, 약 이개월 후에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군대를 도로 개성으로 데리고 와서 최영을 귀양보내고, 얼마 후에 고려의 충신 정몽주를 죽이고서기 1392년에 이성계가 임금이 되었습니다.

### 제 칠절 고려의 문화.

#### 1. 지금까지 남아 있는 한국 역사를 저작한 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제일 오랜 역사는 삼국사기인데, 약 팔백년 전에 김부식이 쓴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약 육백 오십년 전에, 불교의 종 하나가 쓴 삼국유사인데, 고대의 신화와 전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 2. 불교 서적 출판.

불교의 대장경을 완전히 편찬하여 그것을 목판에 새겼는데,

시방까지 가야산 해인사(海仁寺)에 남아 있습니다.

3. 활자에 관한 이야기.

고려 고종 십일년(서기 1234)에 석로활자를 만들어 책을 밖여 내었다고 합니다. 서양보다는 220년전에 활자를 한 반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4. 화포의 사용.

우왕(禔王) 육년(서기 1380)에 화포로 왜군을 격파하였다고 합니다.

5. 무명(木綿)을 수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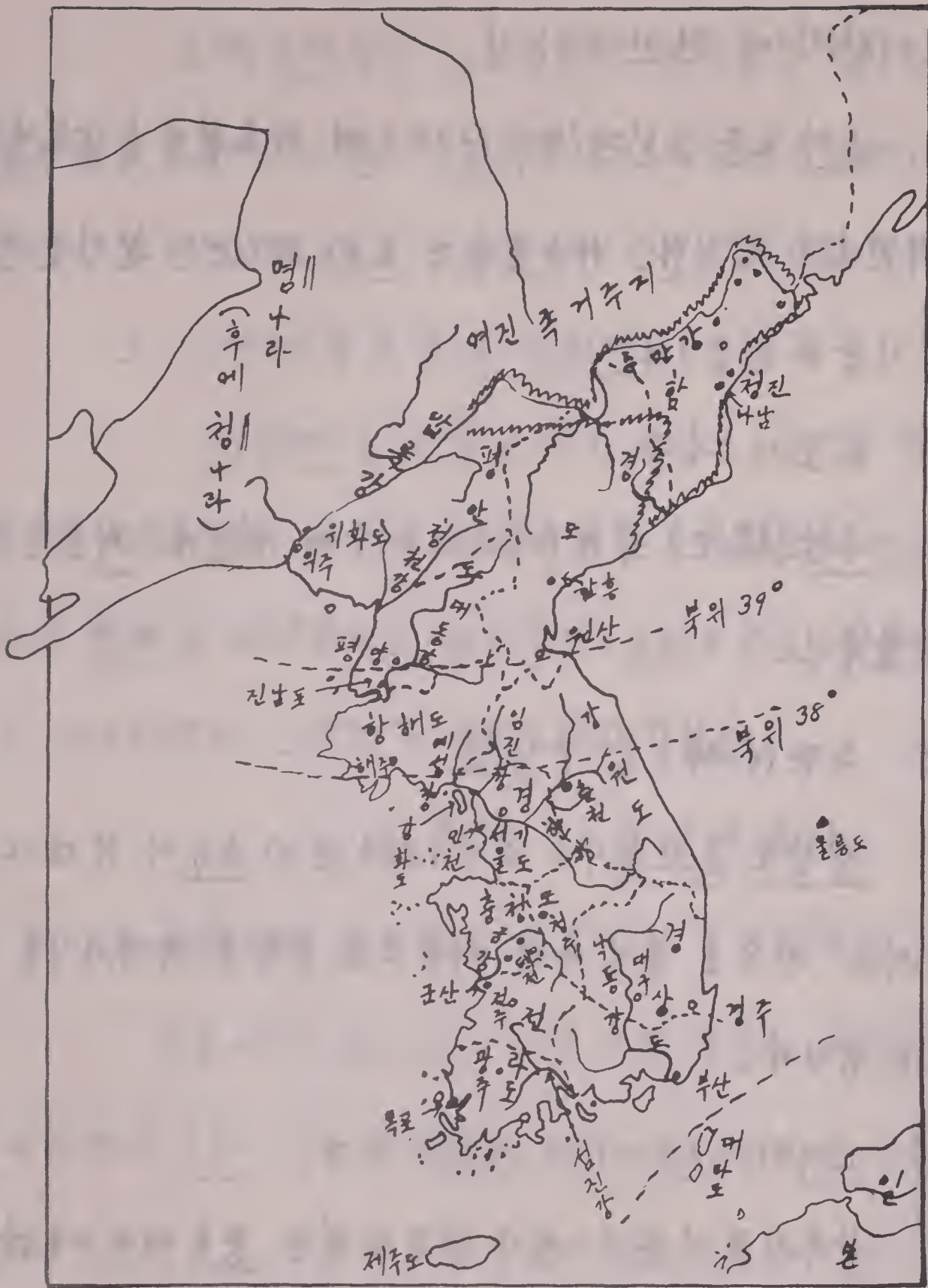
평상도 문익점(文益)이 서기 1386년에 중국에 갔다가 무명씨를 가지고 반도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목화를 재배하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6. 고려자기(사기)에 관한 이야기.

한국사람이 분사 자기 만드는 법은 중국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고려의 청자기는 동양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라고 합니다.

7. 회회교도에 관한 이야기.

# 제주팔도 근세조선



mm → 추후에 회복한 영토  
 서울 → 근세 조선의 서울

회회고도가 고려시대 때 한반도에 와서 있던 일이 있었  
는데, 한국사람들은 회회고도한테서 천문, 수학, 역법(歷法) 등을 배  
웠을 뿐 아니라 회회고도의 풍습을 받은 바도 많았다고 합니다.

## 제사장 근세사.

### 제일절 근세 조선이 일어남.

1. 근세 조선의 첫 임금과 건국한 해.

근세 조선의 첫 임금의 이름은 이성계요, 건국한 해는  
서기 1392년이고, 한기로는 3725년입니다.

2. 근세 조선의 도성.

처음에는 개성을 도성으로 쓰다가 그후에는 한양  
(서울)으로 옮기었습니다.

### 제이절 세종대왕.

1. 근세 조선에 제일 유명한 임금.

근세 조선에 제일 유명한 임금은 네째 임금 세종대  
왕입니다.

2. 세종대왕의 가장 뛰어난 사업.

세종대왕의 가장 뛰어난 사업은 한글을 창제한 것인데, 서기 1443년에 한글을 만들기를 시작하여 1446년에 (단기 3779년) 이것을 반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외국 서적을 한글로 번역하여 일반 민중으로 읽게 하였습니다.

### 3. 세종대왕의 다른 사업들.

세종대왕이 궁중에 집현전(연구원)을 두어, 거기서 수학, 천문, 정치, 경제, 문학, 의학, 법학 등을 연구하게 하였습니다. 서기로 1442년에 측우기(測雨器)를 만들었는데, 서양보다 이세기나 더 먼저 사용하기를 시작 하였습니다. 천문학에 관한 측정기(測定器)도 여러가지를 창작하였다고 합니다. 활자로 서적을 발행하였는데 그대에 사용하던 활자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 4. 세종대왕때에 중국과 한국과의 국계를 확정함.

세종대왕때에 함경북도와 중국과의 국계가 결정되었고, 함경북도 안에 육진을 두어 조선의 국계를 더 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 제 삼절 사화(士禍)와 당파싸움.

### 1. 근세 조선의 종교.

근세조선에서는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하였습니다.



## 2. 사화 (士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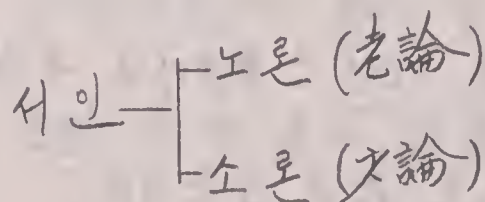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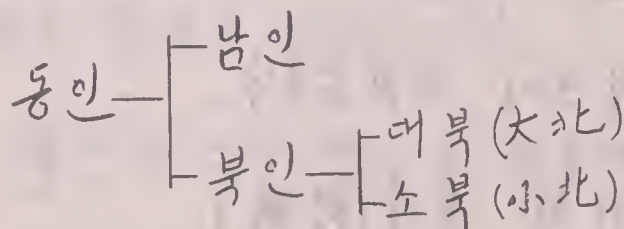
정무에서 유교를 중상함에 따라, 유교의 선비들 가운데, 파문(派門)이 생겼습니다. 연산주 사변 (서기 1498년)에 연산주가 유학으로 유명한 김종직의 반대파의 말을 들어 김종직 이하 그의 학파에 속한 삼십여인을 귀양보내기를 시작 하였습니다. 그후로는 한 파가 정무의 세력을 잡으면 그대른 파의 사람들을 귀양보내거나, 혹은 죽이었습니다. 이것을 사화라고 합니다.

## 3. 당론

어느나라 이든지 정계가 당파가 없을수 없는 것입니다.

벌써 사화로 정계가 어지럽게 되어 있는데, 선조왕 팔년 (서기 1575)부터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으로 두편이 갈라 졌습니다.

## 4. 그후에 더갈린 당론.



이런 당쟁이 언제 조선을 약하게 한 큰원인입니다.

## 제 사절 임진왜란.

### 1. 왜국(일본)의 정치적 형편.

일본은 오래동안 내란이 끊임없이 없다가, 홍신수길(豊臣秀吉=도요도미, 히데요시)이가 왜국을 통일 하였습니다. 그후에 그는 다른 나라를 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 2. 왜국이 조선에 요구한 조건.

왜국은 조선에 요구하기를 왜국이 명나라(중국)를 칠 터인데, 조선의 길을 빌리라고 하였습니다.

### 3. 왜국 요구에 대한 조선의 대답.

조선은 물론 왜국의 요구를 거절 하였습니다. 그결과로 왜국의 홍신수길이 조선 왕 선조 이십오년 임진년(서기 1592)에 왜병 이십만을 동병하여, 먼저 왜장 소서(小西)와 가등(加藤) 등으로 오만 왜병을 거느리고, 쳐들어오게 하였습니다.

### 4. 임진 왜란 초기의 육전(陸戰)

국방에 준비가 없던 조선은 뜻밖에도 육전에 패하게 되고, 조선의 선조 왕은 평안북도 의주로 옮겨 갔습니다.

### 5. 임진 왜란의 해전.

그때 일본의 해군도 매우 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전라도 좌수사(左水使)로 있던 이순신 장군이 미리 준비하여 두었던 거북선을 가지고 조선 남편 바다에서 왜 해군을 격파하였습니다.

#### 6. 조선 각지방의 반항.

그때 조선 각지방에서는 백성들이 의병을 일으켜서 왜 군과 싸웠습니다.

#### 7. 조선은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음.

그때 조선은 명나라(중국)의 원조를 구하였는데, 명나라에서는 명나라 군대를 조선에 보냈습니다.

#### 8. 잠시 동안 휴전된 이야기.

왜군은 평양이북으로는 더진군할수 없게 되었고, 일 년후에, 조선과 왜군과의 화의가 시작된것을 기회로 하여, 왜군은 조선 남해안으로 물러가 있었습니다.

#### 9. 왜군이 다시 조선을 쳐들어옴.

평화조건에 불만을 가진 흥신수길이는 다시 왜군을 더보내어 조선을 쳐들어 왔습니다.

#### 10. 이순신 장군의 죽음.

반대 당의 포함을 받아 퇴직중에 있던 이순신 장군이 왜 군한테 피하게 되고, 남은 조함을 거느리고 다시 왜 해군을 깨트려 버렸고. 나중에는 퇴조하는 왜 군을 깨쳐 버렸으나, 불행히 왜 군의 유란에 맞아서 전사하였습니다.

## 11. 임진란의 종결.

일본의 퉁신 수길이가, 죽으므로 왜 군은 퇴조하게 되었습니다.

## 12. 임진 왜란의 병향.

왜 군이 칠 팔 년 동안, 백성을 살해하고, 부녀를 능욕 하였을 뿐 아니라, 조선의 경제와 공업에도 큰 손해를 주었는데, 특히 왜 군이 조선의 자기 공업자를 거의 전부 일본으로 잡아 갔습니다.

제 오절 병자 호란(丙子胡亂).

### 1. 임진 왜란 뒤에 중국의 정치상 변동.

임진 왜란 때에 조선을 돕던 명나라가 쇠약하여지고, 만주에 있던 여진족 가운데서 눌하치란이가 일어나서 청나라를 중국 안에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2. 청국(淸國)이 조선을 침범한 이야기.

청국의 둘째 임금인 태종이 조선의 인조왕 노년(서기 1627)에 조선을 침입하기 를 시작 하였습니다. 한 십년 후에 (서기 1636, 병자년) 다시 조선을 침범 하였습니다. 그때에 조선왕은 남한 산성에서 청국군대와 사십구일 동안 싸우다가, 나중에는 조선왕이 할수없이 청군앞에 나아가, 경화를 청하였는데, 그때부터 청국를 조선의 종주국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제 4 절 조선 전기(前期) 문화와 공예.

1. 조선 전기의 독특한 문화상 발명.

세종대왕(서기 1419-1450) 때에 조선 국문(한글)을 만들었는데, 시제적으로 자랑할만한 것입니다. 세종대왕 때부터는 모든 서적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일반 백성으로 읽게 하였습니다.

2. 활자에 대한 이야기.

금속 활자는 고려 때에 시작한바로서, 근세 조선에서는 태종왕(서기 1430) 때에 주자소(鑄字所)를 설치하고 우리 활자로 서적을 인쇄 하였습니다.

### 3. 과학서적을 출판함.

세종왕 때에 동양의학서를 출판하였고, 태종왕 (서기 1401-1418) 과 세종왕 (서기 1456-1468) 때에는 농업과 잠업에 관한서적들을 출판하였습니다.

### 4. 과학적 기구들을 발명함.

천문 측정에 관한 여러가지 기구를 발명한 일이 있었고, 우량을 측정하는 측우기도 만든 것이 있었는데, 서양보다는 약 이세기나 더 일찍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 5. 과학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

오백트 이상의 기록을 기록한 동운기란 것이 있습니다.

### 6. 한국민족역사의 관한 저술.

세종왕 때에 고려사를 편찬하였고, 성종왕 (서기 1470-1494) 때에 동국통감을 저술 하였습니다. 세종왕 때에 팔도지리책도 저술 하였습니다.

### 7. 법전에 대한 서적이 완성됨.

성종왕 때 (서기 1470-1494) 에 평국대전이란 법전이 완성되었습니다.

8. 음악 서적을 편성함.

세종왕때에 음악에 관한 연구가 시작 되었고, 음악에 관한 서적은 성종왕때에 편성되었습니다.

9. 거북선에 대한 이야기.

거북선의 형상은 거북과 같고, 그거죽에는 철갑을 두루고, 그위에 못을박아서 적군이 들어 오지 못하게 되었고, 양쪽에는 사방으로 발포(發砲)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이 사용한것입니다.

10. 비차(飛車)에 대한 이야기.

임진난 때에 왜군한테 둘러싸힌 조선군대 중에서 비차를 타고 원수의 진을 넘어 갔다고 합니다.

11. 비찍진 천뢰.

임진난에 조선인이 쓰던 공성포입니다.

12. 화차(火車).

전차(戰車)에 구멍을 한사십개 뚫고, 각구멍마다 총을 두어, 계속 발화케 하는 전구(戰具)로서 현대의 탱크나 기관총 같은것입니다.

### 13. 조선 자기 공업에 관한 이야기.

조선 반도 에서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자기를 고려 때부터 만들었어 합니다. 그러나 임진난 때에 조선 에 있던 자기 직공들이 일본 으로 잡혀 갔으므로 조선 만에는 자기 공업이 보잘 것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 의 자기업자들이 조선 인의 자손들이 많다고 합니다.

### 14. 종교에 대한 이야기.

근세 조선 에서는 유교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불교는 사회적으로 현대를 받았읍니다. 임진난 당시에는 불교도의 불만한 활동이 많았어 합니다.

제 칠 절 문화의 진흥과 정치의 부패와 민중의 반항운동.

#### 1. 임진 왜난과 병자호란 이후의 조선 의 문화.

일본 과 청국 과의 난들을 당한후, 조선 백성들의 자각이 생기어서 중국 을 통하여 새로운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이기를 시작 하였습니다.

#### 2. 서양에서 조선 에 들어온 종교.



인조 왕(서기 1623-1649) 이후에 천주교가 중국을 지나서, 조선에 들어 왔습니다.

### 3. 왕들의 외척의 권세 다름.

순조, 현종, 철종 세 임금(서기 1801-1863) 시대에는 왕들의 외척들이 권세를 잡게 되었는데, 외척을 끼리 서로 권세 다툼이 심하여 나라의 정사가 어지럽게 되어 있었습니다.

### 4. 그때의 일반민중의 경제적 정세.

그때의 정부의 확장이 심할 뿐 아니라, 년년히 흉년이 들어 일반민중의 정세는 매우 곤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 5. 동학.

천주교를 서학이라 하고 그것과 대립하여 최제우 (崔濟愚)라는 자가 동학이란 한 새 종교를 창설 하였는데, 그는 유, 불, 선 세 교의 교리를 한데 뭉치어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교리의 중요한 철학은 사람은 곧 하늘이라는 일종의 범신론(汎神論)입니다.

### 6. 조선 정부의 동학에 대한 정책.

경제적으로 곤난한 지위에 있는 일반 민중은 이 새  
프리를 즐겁게 받는 이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우려워 하는 정부  
는 최제우를 잡아 사형에 처 하였습니다.

## 제팔절 대원군.

### 1. 대원군.

철종왕이 돌아간 뒤에 그의 친아들이 없으므로,  
고종 황제가 열두살에 왕이 되었는데, 이 새 임금의 친 아버지 되는  
이가 대원군 입니다.

### 2. 대원군의 정치적 개혁.

첫째로, 대원군이 그친 왕들의 외척의 권세를 없  
렸고, 둘째로, 벼슬을 고르게 각지방인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셋째로, 국세를 세민이나 양반이나 다같이 부담케 하였습니다.

### 3. 대원군의 내정의 그릇된 점.

새 궁(경복궁)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자들로 돈을 바치  
게 할뿐더러, 백성들을 값없이 일을 시켰고, 그밖에 당백전 이라는 돈(이돈  
은 한푼을 통상돈 백푼으로 쓰는 돈이었습니다)을 발행하여 화폐

의 신응을 떨어뜨리며, 국가의 경제적 타격을 심하게 만들었으므로 백성의 원망이 매우 많았습니다.

#### 4. 대원군의 천주교에 대한 정책.

대원군이 불안서 천주교 선교사와 조선의 천주교도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 5. 불안서 함대의 전투행동.

불안서 함대가 강화도를 쳐 들어 왔으나, 나중에 수비대 한티 쫓겨 갔습니다.

#### 6. 대원군의 대외정책.

대원군은 어느 외국이든지 배척하는 쇄국 정책을 썼습니다.

#### 7. 대원군의 국내 원수.

대원군이 선택하여 고종의 왕비로 삼았던 민비(명성황후)가 대원군의 국내의 원수 이었습니다.

### 제 2절 외국과 관계.

#### 1. 임진 왜난 후에 조선과 일본의 국제적 관계.

임진왜난 후에 오랫동안 일본과 조선의 국교가 없다가 일본이 서양의 문화를 받은 후, 일본이 먼저 통상하고자 하였습니다.

2. 조선과 일본이 수호조약(修好條約)을 체결함.

조선과 일본과의 수호조약을 고종 황제 십삼년(서기 1876, 병자년)에 체결하였습니다. 수호조약의 조목은 십이조 목인데, 그 중에 하나는 일본과 조선이 국제적으로 평등권이 있다고 함이요. 또 하나는 조선의 부산, 원산, 인천 세 항구를 일본과 통상하는 항구로 열기로 함입니다.

3. 조선과 청국과의 관계.

조선이 형식상으로는 청국을 종주국으로 인정 하였었으나, 사실로는 조선이 자주하는 독립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불관시하고 미국하고 국제적 문제가 있을 적에 청국은 인정하기를 조선은 독립국 인즉 직접 조선 정부와 교섭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4. 일본 외에 조선과 통상 조약을 체결한 다른 나라들.

미국과는 서기 1882년에 한미수교통상조약(韓美修交通商條約)이 체결되었고, 그 다음 해에는 영국, 러국(독일), 청국들과

통상조약이 체결되었고, 서기 1884년 에는 이태리 와 아국(러시아)과 통상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제십절 정부안에 내용.

1. 정부안에 두가지 내용이 생김.

고종 황제의 친부인 예원군과 고종 황제의 황후의 친척인 민씨 집안 사이에 세력쟁투가 있었습니다. 그밖에 정부를 혁신하고자 하는 힘브들이 뭉쳐있는 개화당(開化黨)과 청국에 의지하여 옛 제도에도 지나가는 수구적인 사대당(事大黨)이 있었습니다.

2. 사대당과 개화당의 외교정책의 다른점.

개화당은 일본과 결합하여 중국의 세력을 조선에서 축출하여야 된다고 하였고, 그 반대로 사대당은 중국과 국제 친선을 중전과 같이 보우하여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3. 일본 공사관 이 불타게된 이야기.

서기 1881년에 신군제(新軍制)를 채용하고, 일인 소위 한사람을 신식고련관으로 연빙(延聘)하여 사관생도들로 신식고련을 받게한일이 있었습니다. 구식장교들과 병정들과 수구파와 예원군이 신군제를 협조하는 개화당과 민씨 집안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서기 1882년 유월(1월)에 구식 병정들이 연체된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으로 탄 쌀에 모래를 섞어 주었다고 하여, 그 병정들이 바로 병영으로 돌아가서 무기를 가지고 일인교련관과 민씨 집의 중요한 인물들을 죽이고 또한 일본 공사관까지 습격하였습니다. 일후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외교문제를 이르칠 의향을 가지고 일본 공사가 자기 공사관에 불을 질러 놓고 도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때에 대원군이 궁중에 들어가서 이사변을 진정하였다고 합니다.

제십일절 조선의 내정을 청.일 양국이 간섭함.

1. 청국 군대가 조선에 들어 오게 된 이야기.

대원군이 러시아 권세를 잡게 되니까, 이것을 질서하는 민씨파에서 대원군을 모함하여 청국 정부당국의 원조를 청하였습니다. 그 기회를 타서 청국 정부는 조선의 내정을 간섭할 작정으로 서기 1882년 칠월에 청국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였습니다.

2. 일본 군대가 조선에 들어 오게 됨.

일본 공사관을 보호한다는 조건하에서 일본 군대를 서울에 주둔시켜야 된다는 일본의 요구에 조선 정부는 동의하였는데,

그해 십이월에 일병이백명이 경성에 와서 있게되었습니다.

제 십이절 조선에 관한 청일조약  
(친진조약)

1. 개화당의 계획.

개화당은 일본 공사관 지도하에서 서기 1884년 십이월에 우정국의 축연을 이용하여 여러사대당원을 죽이고, 권권을 빼앗았으나, 수구당은 형병을 이용하여 개화당을 협조하는 일병을 파하여 버렸습니다. 그때에 일본 공사관은 조선 민중의 손에 붙여 버렸습니다.

2. 청국과 일본사이에 조선에 관하여 친진조약이 체결됨.

서기 1884년 십이월에 조선 서울에서 청일 양국이 충돌된 것을 보아, 두 나라는 각각 자기 나라 군사를 조선에서 철퇴하기로 하였고, 만일 후에 한 나라가 조선에 출병하고자 할적에는 양국이 서로 알기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이 청일 양국이 조선에 관하여 체결한 친진조약의 요점입니다. 이 조약에 의하여 양국 군대는 조선에서 철퇴하였습니다.

## 제십삼절 동학난과 일·청전쟁.

### 1. 동학난.

조선 정부의 정치에 대하여 일반 백성의 불평이 많았  
는데, 동학당원이 이 기회를 타서, 서기 1894년 초에 보국안민  
(輔國安民)이란 표어로 백성의 마음을 선동하여 혁명을 이끄셨  
습니다.

### 2. 청국이 조선에 다시 출병케 됨.

조선의 과군으로는 동학난을 진정하기 어려울 듯 하  
므로, 조선 정부는 이어려운 사정을 청국 정부당국과 상의한바가  
있었는데, 청국의 위정자(爲政者)는 생각하기를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기에 한 좋은 기회라 하여 곧 자기나라 군사를 조선에 파  
견하였습니다.

### 3. 일본이 군대를 조선에 파견함.

한 좋은 기회만 보고 있던 일본은 청국 군대가 조선  
에 파견되는 기회에 곧 일본 군을 조선에 파견하였습니다.

### 4. 청·일 전쟁의 시작과 그 결과.

서기 1894년 칠월에 일·청 전쟁이 시작되어 결국



에는 청국이 패전 하였는데, 그 결과로 청국의 세력이 조선에서 추출되었고, 조선은 완전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차연히 일본세력은 조선 안에서 귀했습니다.

## 제 십사 절 일.로의 충돌.

### 1. 러시아가 조선에서 활동함.

청국의 세력은 조선에서 떠나 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세력이 조선에 크게 세게 되었습니다. 명성황후 같은 이도 친로파의 하나 이었습니다.

### 2. 일본이 명성황후를 죽임.

서기 1895년 시월에 친로파의 중견인 명성황후를 일본이 살해 하였습니다.

### 3. 아국(러시아)과 영.미 양국의 관계.

아국의 세력이 조선에 들어 오는 것을 즐겨워 하지 않는 나라 들은 일본밖에 영국과 미국 이었습니다. 아국이 대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히 영국은 일본과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 4. 조선에 관한 일.아 양국의 주장.

일본은 전 조선을 일본 세력하에 두어야 된다고 하였고, 아국은 북위(北緯) 삼십주도 이북을 중립지대로 하여, 그 중립지대에는 양국의 군대를 파견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 5. 일.아 전쟁 이야기.

서기 1904년 이월에 일.아 전쟁이 개시되어 아국은 해전과 육전에 패전하게 되며, 나중에는 미국 대통령의 주선으로 서기 1905년 팔월에 평화조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조선은 완전히 일본 세력 밑에 있게 되었습니다.

제 십오절 조선이 일본에 합병됨과 조선인의 독립운동.

#### 1. 조선이 일본에 보호국이 된 이야기.

일본이 조선 안에서는 병력으로 조선 정부를 압박하고, 밖으로는 열국을 속이며, 마침내 서기 1905년 십일월에 조선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들었습니다.

#### 2. 한국 황제가 밀사를 해아 (헤익) 평화 회의에 보낸 이야기.

한국의 고종 황제가 세계 열강에 호소코자 밀사  
세 사람을 해아 평화회의에 보냈었으나, 평화회의에서는 한국  
황제의 진정서를 받지도 않았읍니다.

3. 일본이 조선을 합병한 이야기.

고종 황제는 밀사 사건이 성공하게 되지 못한 결과, 퇴  
위 하게 되고 순종 황제가 즉위 하였습니다. 서기 1910년 팔월 이십구  
일에 일본은 드디어 한국을 일본에 합병 하였습니다.

4. 한국 민족의 만항운동.

한국이 일본 나라에 합병된것을 분하게 생각하는  
한국 애국지사들은 각지방에서 의병대(義兵隊)를 조직하여 일병  
과 여러 해 동안 싸웠읍니다.

5. 서기 1919년에 조선 민족 전체가 조선의 독립을 선  
언함에 찬동한 이야기.

제 일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대통령 윌슨 씨가  
세계에 선포한 민족자결주의를 한국 민족은 깊이 믿어, 서기  
1919 삼월 일일에 대한 민족을 서울서 한국 민족 대표 삼십삼  
인의 이름으로 선포하였는데, 그당시에 고종 황제 국장에 참례코

자 시골서 서울로 올라 와 있던 민중과 서울시민들이 합하여 약  
사오십만 군중이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서울시의 중요한 가로  
로 돌아 다녔습니다. 이와 같은 시위운동이 서울에만 있었을뿐  
아니라 각도시, 각고을, 각촌락에도 독립선언을 관동하는 시위  
운동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 6.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직된 이야기.

해외에서 장구한 세월 두고 혁명운동을 계속 진행  
하기 위하여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조직한 후, 약 35  
년동안 (1919년에 독립을 선언한 때부터 제이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 한국인의 혁명운동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  
기관의 지도하에서 계속 하였습니다.

#### 7. 제이차 세계 대전 이후의 한국.

제이차 세계 대전 끝에 일본군대를 항복 받기 위  
함이라는 조건하에서 소비엣 군대는 북위 38도 이북을 점  
령키로 하였고, 미국 군대는 그이남의 지방을 점령키로 되었다  
고 합니다. 그러나 양국 군대가 점령한 뒤에, 미소 양국의  
국제적 문제가 세계적으로 어느 지점에서든지 평화적 해결







LIBRARY OF CONGRESS



0 033 261 075 2

151